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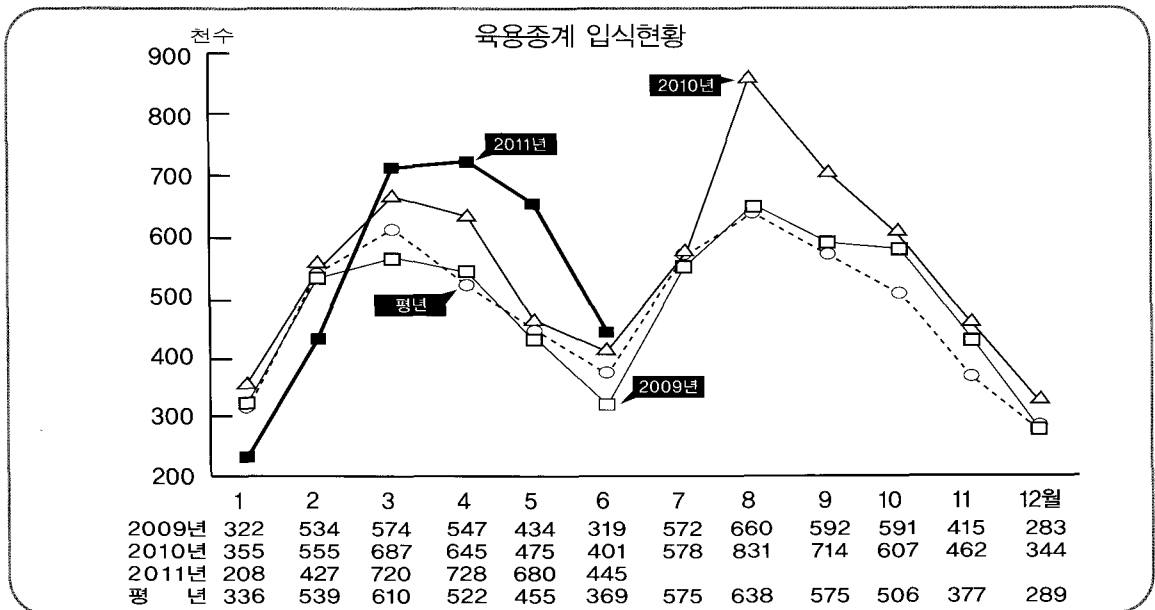


8월 닭고기 수급 전망

1. 육용종계 입식현황

■ 6월 육용종계 입식수수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

- 지난 6월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44만4천5백50수로 전년동기(40만1천3백수) 대비 10.8% 증가했으며, 이는 평년수준(36만9천수) 대비 20.5% 증가한 수준이다(5월 67만9천8백수 대비 34.6% 감소).
- 육용종계 입식수수는 전년동기 대비 및 평년수준보다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향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종계입식 의향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종계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전년대비 13.5% 증가했던 종계 입식수수는 올해 전반기에도 2.8%가 증가해 당분간 전년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입식수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대한양계협회

2. 배합사료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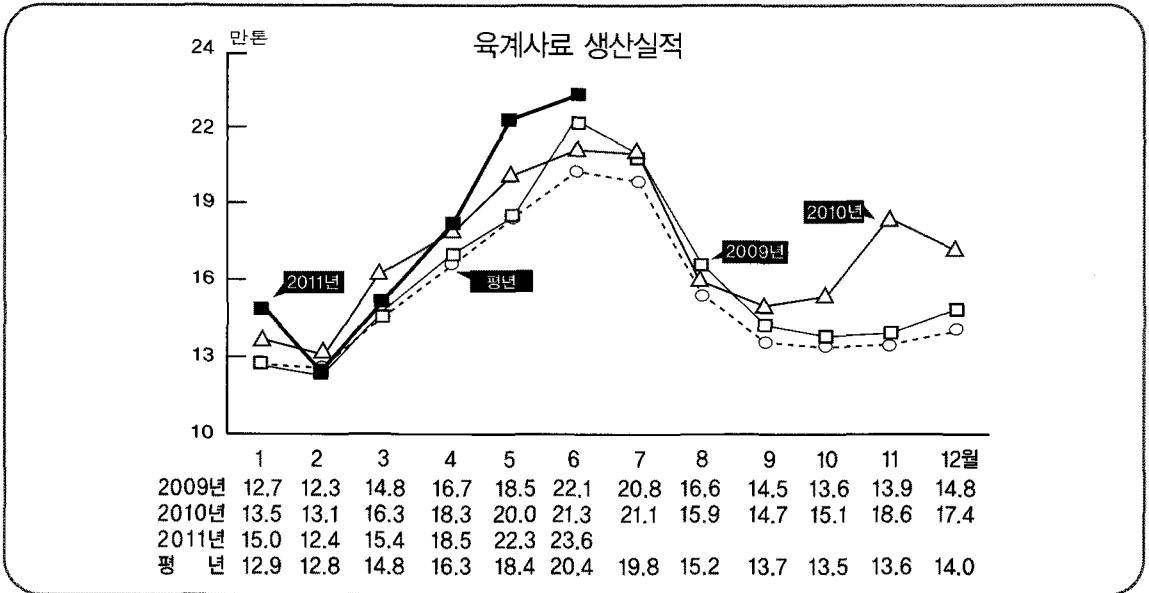
■ 8월 사육수수 전년동기보다 증가 전망

- 8월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6월 육용종계사료 생산량은 21,659톤으로 전년동월(22,352톤) 대비 3.1% 감소했으며, 전월(23,916톤) 대비해서는 9.4% 감소했다. 이는 최고 성수기인 초복 이후 소비감소를 감안해 종계노계도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나,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적인 생산량 감소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6월 육계 배합사료 생산량은 235,744톤으로 전년동월(213,170톤) 대비 10.6% 증가했으며, 전월(222,555톤) 대비해서는 5.9% 증가했다. 8월 육계사육 마리수는 종계 생산성 증가로 인한 병아리 생산량 증가와 육계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대비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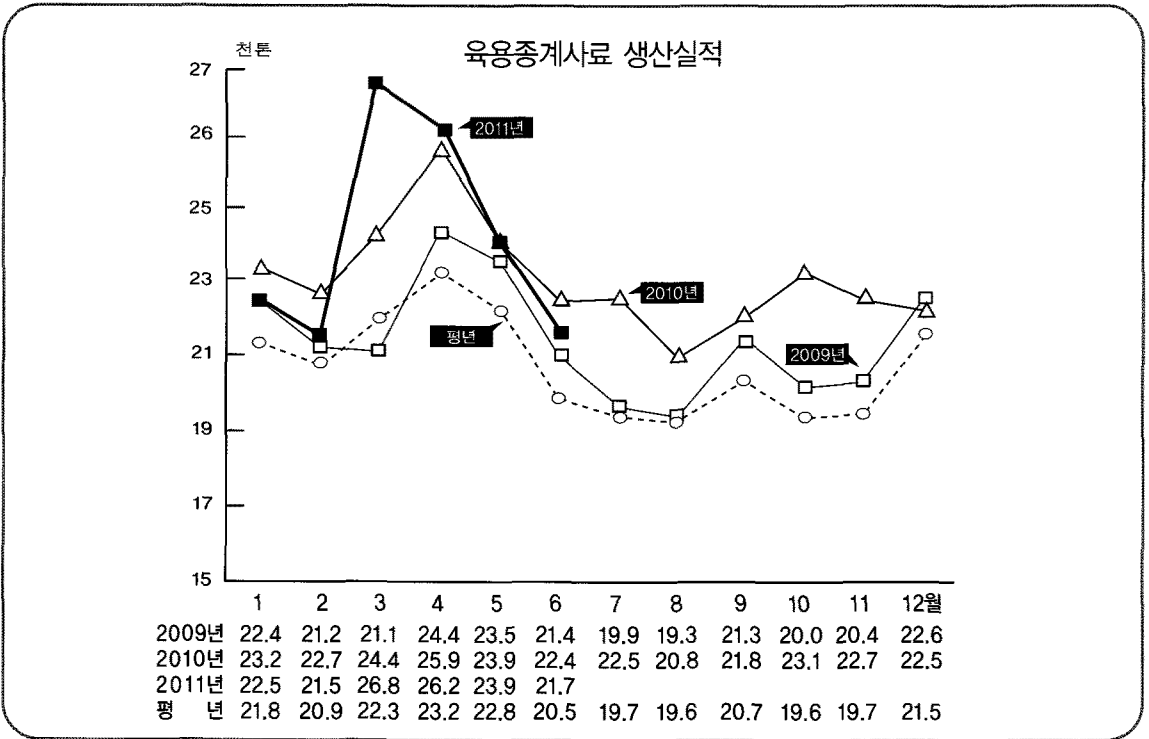


통계

8월 닭고기 수급 전망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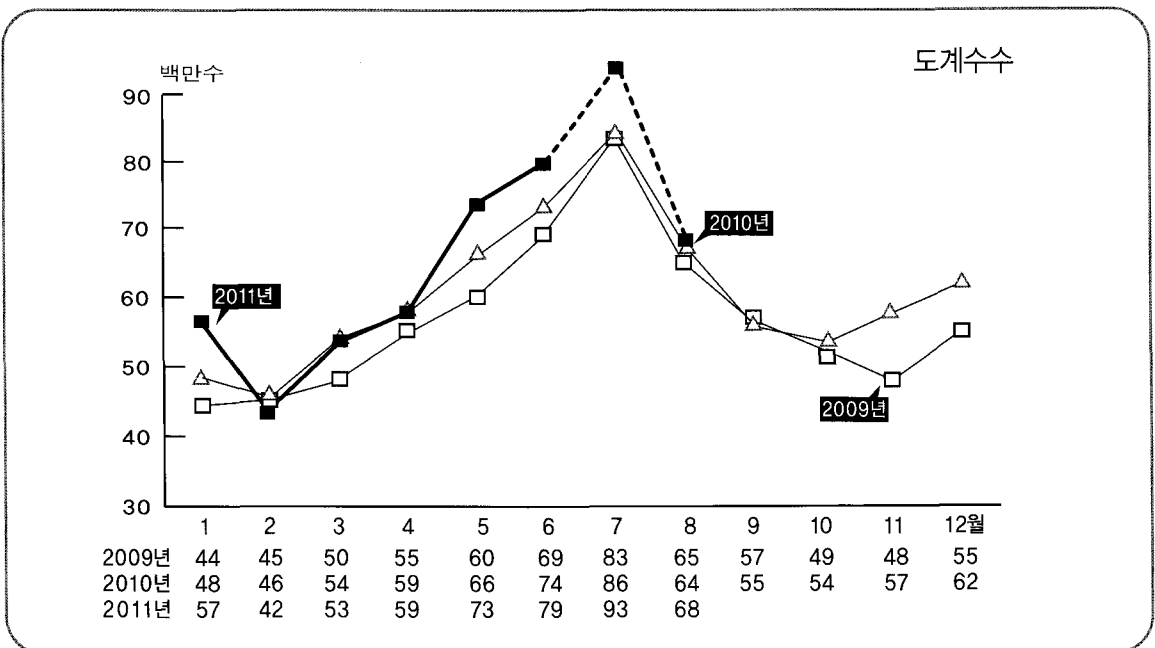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생산량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3. 도계수수

■ 8월 도계수수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

- 지난 6월의 도계수수는 7,944만수로 전년동월(7,371만수) 대비 7.8% 증가했으며, 전월(7,293만수) 대비 8.9% 증가했다.
- 8월에는 육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도계수수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계수수는 6,831만수로 전년(6,434만수)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1년 7~8월은 농경연 추정 및 전망치)

4. 닭고기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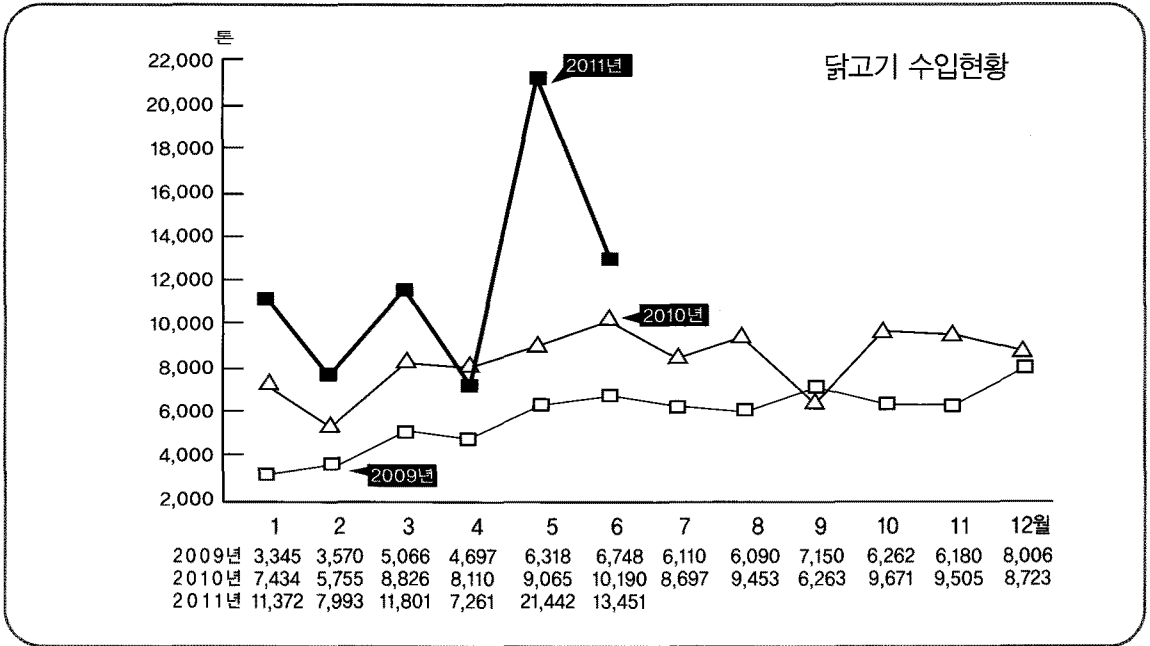
■ 8월 닭고기 수입량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지난 6월에는 13,451톤이 수입되어 전년동월(10,109톤) 대비 33.1% 증가했으며, 전월(21,442톤) 대비해서는 37.3% 감소했다. 검역기준 수입량은 11,298톤으로 전년동월(11,321톤) 대비 0.2% 감소했으며, 전월(11,169톤) 대비해서는 1.2% 증가했다.
- 지난 5월에 이어 냉동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수입이 계속되면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5월에 상당량이 수입된 이후로 수입량은 감소했으며, 국내산 가격의 하락으로 추후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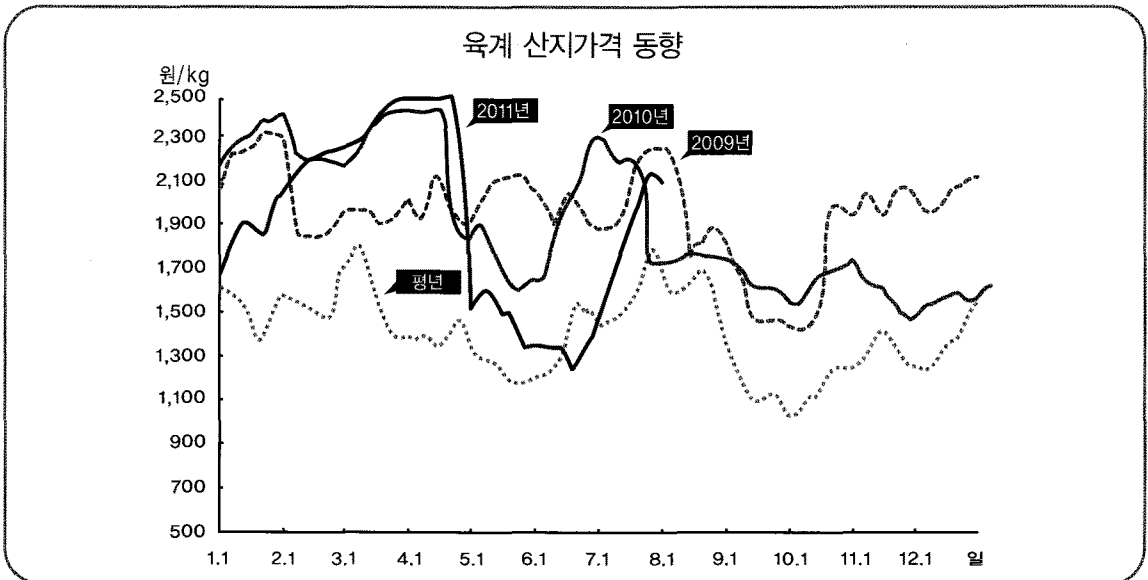
8월 닭고기 수급 전망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

5. 가격동향

■ 8월 육계 산지가격 평균 1,500~1,700원 전망



※주 : 평년은 2006~2010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5일 이동평균가격)

- 지난 7월에는 장마에도 불구하고 6월의 일시적인 입식감소로 인한 공급량 감소와 초복에 대한 수요기대로 초순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7월(1~27일) 평균 산지시세는 1,885원을 나타냈다(전년 7월 2,043원보다 7.7% 하락, 평년가격 1,743원 보다는 8.1% 상승, 전월 1,389원 대비 35.7% 상승).
- 8월의 경우 생산량은 7월에 비해 감소하나 중복 이후 소비감소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시세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말복까지 무더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물량증가와 함께 초순에는 포함세를, 중순 이후에는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8월의 육계 산지가격은 평년가격이나 전년가격보다는 하락한 1,500~1,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년 8월 가격은 1,783원, 평년가격은 1,700원).

6. 수급자료

〈육계 및 삼계 입식·비축현황〉

(단위 : 천수)

기간	육계						삼계					
	입식			비축			입식			비축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2010년	2011년	전년대비
6. 13~6. 19	9,358	9,391	100.4%	2,335	3,269	140.0%	5,220	6,070	116.3%	1,171	1,496	127.8%
6. 20~6. 26	9,382	8,946	95.4%	2,411	3,749	155.5%	4,790	4,310	90.0%	1,247	1,792	143.7%
6. 27~7. 3	9,218	8,909	96.6%	2,588	4,106	158.7%	3,680	4,170	113.3%	1,106	1,979	178.9%
7. 4~7. 10	9,125	8,648	94.8%	2,631	4,532	172.3%	2,400	3,451	143.8%	1,006	1,525	151.6%
7. 11~7. 17	8,181	8,053	98.4%	2,645	4,290	162.2%	2,110	2,549	120.8%	891	1,464	164.3%

7. 결론

- 8월에는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겠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증가한 수준이고, 소비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중복까지는 포함세, 중복 이후에는 약보합세를 보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한 수준인 1,500원~1,700원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장마 이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시세는 예상치보다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시세변동요인

구분	생산(공급) 측면	소비(수요) 측면
인상요인	- 무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열사피해로 생산량 감소	- 무더위 이어질 경우 소비증가 - 말복 수요 증가
하락요인	- 생산물량 전년대비 증가 - 냉동비축 물량 증가 - 전년대비 생산성 향상으로 물량 증가추세	- 전반적인 소비침체(초복과 중복 소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함)